

보건·검역당국 초동 대처 실패 ... 지역사회 감염 '비상'

'16번' 중국 방문이력 없다고 공항·보건소·병원 검역 안 해
'22번' 전남 첫 확진 ... 광주·전남 광범위한 활동 불안 고조

6일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명절 전 태국 여행을 다녀온 광주 첫 확진자 16번 환자의 오빠로,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아닌 제 3국을 다녀온 16번 환자에 대한 보건·검역당국의 초동 대처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3-5-6-7-8면>

◇전남 첫 확진자 생활 반경 넓어 확산 우려= 전남도는 6일 "이날 새벽 1시 나주시(산포면)에 사는 46세 남성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첫 확진자"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남성은 국내에서 발생한 22번째 확진자이자 16번 확진자의 오빠로, 지난 25일(설날) 16번 확진자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여동생 확진 판정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 자가격리했으며, 현재 조선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5일 오전까지 발열 등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22번 확진자의 주거지는 나주시이며, 직장은 광주로 생활 반경이 넓다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낮에는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광주 첨단 광주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고, 퇴근 이후에는 나주시 산포면 집에서 모친, 부인과 함께 생활했다. 최근까지 집 옆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등 작물을 재배해 인근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수시로 납품하고, 인근 빛가람혁신도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등 광범위한 반경에서 움직였다.

방역당국은 22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접촉자 파악을 진행 중이지만, 관찰 보건소인 나주시와 전남도는 접촉자 규모를 현재 최소 300~400명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22번 확진자가 광주와 전남을 넘

나들면서 활동을 해온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 일원화 등의 방역 공조체제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당국 초동 대처 실패, 슈퍼전파자 키우나= 16번 확진자에 이어 딸(18번), 오빠(22번)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역·방역 당국의 초동 대처에 아쉬움이 커지는 목소리가 높다.

무안국제공항 검역소, 광산구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신종 코로나 감염 오염 지역인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16번 확진자에 대한 검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안공항 검역소는 지난 달 19일 입국한 16번 확진자가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통과시켰다.

광주 광산구보건소는 16번 확진자와 그를 치료했던 광주 21세기 병원 측의 검사 요청도 묵살했다. 질병관리본부(1339콜센터)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21세기병원 측은 증세가 심해져 지난달 27일 전남대병원으로 향한 16번 확진자에게 '태국 공항 출국장에서 상태 안 좋은 사람과 접촉돼 신종코로나로 의심된다'고 진료의뢰서까지 전달했지만, 전남대병원은 광산보건소로부터 '중국 방문 이력이 있어야 의심환자로 분류된다'는 의견에 따라 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2번 확진자의 부인과 모친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16번 확진자 증세 발생 당일 나주 친정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설 전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왔던 가족 8명 가운데 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식사 자리에는 16번 확진자 부부와 자녀 3명, 22번 확진자 부부 등 7명이 있었다. 설 당일 22번 환자 집에는 서울과 천안에서 온 아들(19)과 딸(21)이 있었으나 이들은 영국으로 최근 출국했고, 딸은 천안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날 오전에만 전국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2번 확진자가 발생한 6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열기침 증상 등을 호소하며 담당의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국 방문이력 없어도 신종 코로나 검사 시행

감염증 대응절차 개정

앞으로 중국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진단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이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 확진자에 대해 의사가 의심환자로 소견서를 작성했음에도 방역당국이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비책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2월 5일자 2면>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

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로 제시했다.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자제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에도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할 경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흥사·송광사·향일암 등 전남 사찰 12곳 CNN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선정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해남 대흥사, 순천 송광사 등 전남의 사찰 12곳이 선정됐다. 지난달 10일 CNN은 여행색션에서 역

사적 의미가 깃든 한국의 900개 사찰 가운데 여행객이 가볼 만한 아름다운 산사 33곳을 소개했다.

특히 33곳 중 약 70%가 전남에 소재하

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 지역이 산사와 연계한 문화예술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CNN은 33개의 사찰을 선정한 것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33단계를 밟아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번뇌와 욕심을 버리고 33계단을 오르면 부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다.

이번에 뽑힌 사찰은 지난해 세계문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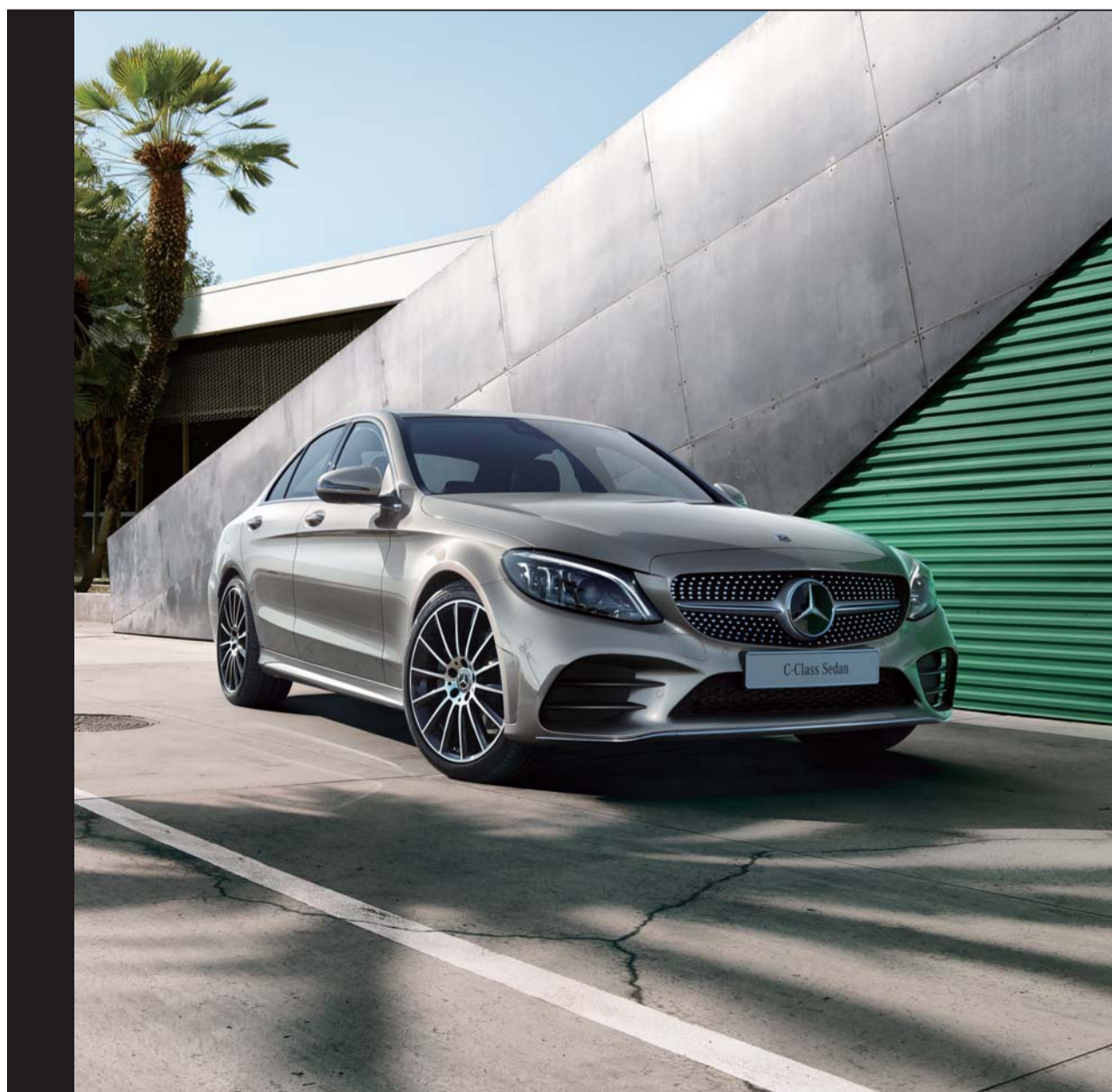
산으로 지정된 해남 대흥사와 순천 선암사가 포함됐으며 구례군은 화엄사, 천은사, 사성암, 연곡사 4곳이 포함돼 아름다운 사찰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이밖에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 화순군은 운주사와 쌍봉사 등 각각 2곳이 선정됐으며 곡성 태안사, 담양 보리암도 아름다운 사찰에 뽑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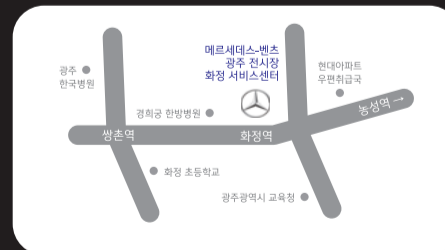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Books 책 세상	▶14-15면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18면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